

<디어데이즈> 현수 역 지원자용 대본

* 총 2개의 씬이 있습니다. 각 씬의 연기를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소개]

성울 | 20대 후반의 여성. 내면의 단단함을 가진 외유내강의 인물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추진하는 편은 아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한다. 처음으로 '꿈'이 생기면서 잔잔한 그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사장 |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앤드 라이브카페'의 사장. 살갑고 유쾌한 분위기메이커지만, 삶과 음악을 대할 때만큼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과거에는 그도 록밴드의 보컬이었지만, 일련의 사정으로 음악 생활을 포기하고 라이브 카페를 차렸다.

현수 | 음악인이자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다는 뮤직 프로덕션 '소리'의 매니저. 겉으로는 예민하고 날카로우 보이지만, 담당 작사가들을 잘 챙기고 은근히 인간적이다.

S#1 소리 뮤직 회의실 (오전, 겨울)

낮선 회의실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망설이는 울. 크게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자, 피곤한 듯 미간을 누르며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인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남자는 울을 보고는 안경을 고쳐 쓴다.

현수 (자리에서 일어서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울 (미처 가다듬지 못한 목소리로) 아, 안녕하세요.

현수는 울에게 맞은편에 앉으라는 듯 손짓을 하곤 자리에 털썩 앉는다.

현수 (명함을 건네며) '소리 뮤직'에서 성울 씨를 담당하게 된 매니저, 신현수라고 합니다.

울 (명함을 처음 받아본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아, 네... 저는 성울이라고 합니다.

현수 네, 성울 씨. (들고 있던 서류를 정리하며) 지난번에 메일 통해서도 말씀 드렸지만, 오늘 저희랑 계약서 마저 쓰고, 앞으로 어떻게 작업 이루어지는지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일단 계약 사항부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울 쪽으로 계약서를 내밀며) 여기 보시면, 저희 소리 뮤직이랑 전속 작사가로 계약하시는 거고, 계약금은...

S#2 소리 뮤직 회의실 (오전, 가을)

울 (서류를 꺼내는 현수를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매니저님. (머뭇거리며) 저, 이제 그만하려고요.

현수 (깜짝 놀라며) 네? 아니, 울 씨. 갑자기 왜요?

울은 한참을 입술을 달싹이다 입을 다문다.

현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요즘 작업할 것도 많고, 힘드시죠?

울 (망설이다 복잡한 표정으로) 사실... 요즘...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잘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다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울의 이야기를 들은 현수는 착잡한 표정으로 마른 세수를 한다.

현수 (한숨을 쉬며) 제가 여기서 한 십 년을 일하다 보니까, 작사가 분들을 진짜 많이 봐요. 번아웃이 와서 쉬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 쉬이란 게 꼭 음악을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음악을 가만히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회사엔 제가 말해 둘테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울 씨가 좋아했던 음악, 다시 찾아봐요.